

농식품 가공기업 · 창업가 손잡고 ‘맛있는 혁신’

농진청 ·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신제품 첫선... 글로벌페스타서 큰 호응

지역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가공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참신한 식품들이 소비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 자원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농촌진흥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일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페스타’ 기간 동안 팝업 형태의 제품 전시·품평 공간을 마련해 각 지역의 우수 농산가공품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쌀과 농수산물을 활용한 구운과자부터 프랑스 제



과·제빵 기법을 접목한 표고버섯 디저트, 참외와 오디로 빚은 과일맥주, 고급화된 쌀과자 등 총 5종의 협업 상품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들 제품은 양 기관이 각각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높여온

농식품 가공기업 5곳과 혁신적 발상으로 지역 현장에서 활약하는 소상공인 4곳을 연계해 개발한 결과물이다. 특히 양양김버섯(강원 양양)과 대전의 오브브라더스가 공동 개발한 ‘표고 초코칩’, 소풍 농업회사법인(충북

영동)과 순천맥주(전남 순천)가 협업한 ‘오디 과일맥주’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각 농촌진흥청장상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글로벌 페스타’는 지역·문화·소상공인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행사 기간 중 홍보관을 운영해 소비자들이 직접 지역 농산물의 가치와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이번 협업은 지역 농산물 기반의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시장에 알리고, 참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뜻깊은 사례”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1월 18일 제10대 이은미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생명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제10대 이은미 원장 취임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1월 18일 제10대 이은미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0대 진흥원장을 역임한 이은미 신임 원장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등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수주를 통해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발전을 견인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ESG 경영을 선도하며 기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재선임됐다.

취임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하며,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기초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ESG(에너지·환경·사회)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설비 이상을 조기 발견하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남하영 사장은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원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인프라 구축, 신규 사업 발굴, 기업 지원, 인력 양성, ESG 경영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 전북 바이오산업의 주도적 설계자로서 첨단 기술 융합과 산업 혁신, 전주기 생태계 강화에 앞장서 글로벌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 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미 원장은 전북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 생물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이오산업 전문가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과학기술·산업 정책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고3 수험생 위한

‘넥스트레벨 토크콘서트’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8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2025 넥스트레벨 토크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Design your Next Level’이라는 주제로 고3 수험생들의 고원 수험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방송인 박재민과 JTV 전주방송 이수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도내 고3 수험생과 교사 등 약 1500명이 참석했다.

특히 가수 페퍼톤스, 키라스, 현서, 모델 정혁 등이 출연해 신나는 공연과 더불어 현실적 조언과 따뜻한 격려가 담긴 토크쇼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북은행은 행사장에 이동영업점 ‘썬버스’와 캐릭터 ‘제이비’, ‘썬드’ 대형풍선을 설치해 청소년들에게 금융 정보와 즐거움을 함께 제공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수험생들이 시험 후 느끼는 불안감을 덜고 미래에 대한 힘과 용기를 얻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청소년 교육과 문화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2010년부터 ‘생생樂페스티벌’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 행사를 주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과 이야기 콘텐츠로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오상근기자

전기안전공사, 2025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태양광 설비 안전성 강화 · ESS 통합관리 구축 공로 인정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 17일 서울 더 플라자 호

텔에서 열린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시상식으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기초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설비 이상을 조기 발견하고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남하영 사장은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홍보 영상 콘테스트 개최

취업연계 특성화과정 성공 사례 확산...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 속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수요 기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 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홍보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제 교육·취업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콘테스트에 출품되는 영상은 사업 참여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며, 본인이 경험한 현장실습,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 지원 과정 등 다양한 활동을 담는다.

특히 영상에는 해당 과정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취업 성과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현장 소감이 포함돼 우수 사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홍보 영상 콘테스트는 전북테

크노파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1월 18일(화)부터 28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콘테스트는 단순한 영상 공모전이 아니라,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을 통해 성장한 청년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전북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로 자리매김하는 데 본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LX공사, 전국서 ‘산불예방 캠페인’

가을철 산불 취약기 차량용 깃발 활용... 불법소각 현장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전국 단위의 산불예방 캠페인에 돌입했다.

LX공사는 산림청이 제공한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을 업무용 차량에 부착하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적 측량 업무와 연계해 홍보 활동을 펼친다.

LX공사는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직원이 약 1천 대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전국에서 지적측량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전국 단위 캠페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현장 업무 과정에서 산림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무단·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지 안내를 실시하고, 산불 발견 시 신속한 신고 활동을 병행해 산림보호와 국민 안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이주화 LX공사 부사장은 “산불 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 산불 예방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X공사는 산불조심 깃발을 부착한 업무용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지적측량 서비스와 함께 산불 예방 메시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오상근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